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이후 총 17건의 허위신고사례가 적발돼 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 결과 허위신고 사례 39건(70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8천953만원을 부과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

지난해 신고제 시행 이후 광주·전남 17건 적발 서울·경기·부산 이어 최다... 과태료 3억원 달해

취 신고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경우 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5건), 서울(4건), 광주(3건), 부산(2건), 전남(1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북구의 주택(대지 200㎡)을 3억8천만원에 거래하고 5억원

으로 높게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북구의 A아파트 85㎡를 9천650만원에 거래하고 5천35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자들도 각각 5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별도로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사례도 22건이나 적발됐

다. 허위신고건수 및 증여형의건수는 국제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실시된 실거래가신고제 이후 허위신고 단속 건수는 총 233건으로 늘었으며, 허위신고자 310명에게는 26억1천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233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90%(210건)는 거래·보유세 절세 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가 차지했다. 광주·전남은 1년간 총 17건이 적발돼 2억8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골드백으로 멋 내세요

광주신세계백화점 2층 더블업 매장을 찾은 고객이 27일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골드백을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국>

신세계, 내년 매출 13조원 유통업계 1위 도약 선언

신세계가 내년에 투자증대와 점포망 확대 등을 통해 유통업계 1위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세계는 27일 발표한 '2008년 경영계획'을 통해 내년도 총 투자비를 올해보다 40% 늘어난 1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연매출 13조원을 달성, 유통업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상품개발본부 등 상품구분부문조직을 확충, 자체브랜드 상품과 해외 직소싱 상품, 단독 판매상품 등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마트 부문에서 자체브랜드 상품 매출비율을 내년에는 13%, 2010년까지 23%로 높이는 한편 해외직소싱 상품 매출도 내년 1천500억원에서 2010년 1조원 규모로 늘려 경쟁사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여수지역 땅값 급등 조짐

11월 지가 상승률 0.92% ↑... 전국 3번째

여수지역의 땅값이 2012년 엑스포 유치에 힘입어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향후 급등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땅값은 움직이지 않은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토지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0.49%)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 5월(0.26%)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시를 비롯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한 서울 용산구·성동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전후로 땅값이 급등해 지난달 지가 상승률이 0.92%에 달했다. 이같은 땅값 상승세는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서울 서초구(0.74%)와 강남구(0.70%) 등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성동구의 땅값이 각각 1.56%, 1.19% 올라 올

년 누적 상승률이 각각 10.2%, 9.2%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기대감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 전체의 땅값 상승률(5.22%)보다 두 배 가량 값이 뛰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땅값은 안정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땅값은 0.38% 올라 전월(0.36%)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올들어 11월까지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47%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에 비해 땅값이 안정됐다. 광주·전남도 올들어 땅값 상승률이 각각 0.85%, 1.02%에 머물렀다. 이는 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각각 0.59%p, 0.89%p 낮아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새 회장에 최원병씨 당선

나주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 45표차 고배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에 최원병(61·경주 안강농협조합장) 후보가 당선됐다.

최 후보는 27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체 유효투표수 1천183표중 52%인 614표를 획득, 569표를 얻은 김병원(54·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후보를 45표차로 누르고 새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최원병 회장
<최원병 회장>
내리 6선을 한 장수 조합장으로, 전국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 회장직도 세번이나 역임했다.

최 회장은 28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경북도의회의 장출신인 최 회장은 1986년부터 내리 6선을 한 장수 조합장으로, 전국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 회장직도 세번이나 역임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단위농협 중심의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확대하고, 회원조합의 계열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두고 농협 일각에서는 조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상도 표가 한데 뭉치면서 전국 지지도에서 앞선 전라도 후보를 눌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포항 동지상고 후배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 1차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에게 137표나 뒤지고도 2차 투표에서 역전해 결국 농협 중앙회장 선거로 정치바람을 타고 지역대결 구도로 치러졌다는 후문도 돌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조달청-구례군 조달업무 협약 체결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은 27일 구례군(군수 서기동)과 물자·용역·시설공사 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A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조달청은 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업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중앙조달의 이점을 살린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종태기자 jitee@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 전남도·해남군 최우수 선정

전남도와 해남군이 고품질 브랜드 쌀을 생산·유통 최우수 도·군으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올 한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한 농업인과 단체를 뽑아 28일 포상한다.

농림부는 27일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 최우수 도·시·군 부문에 전라남도도와 경북 안동시가 수상자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수 도·시·군에는 강원·충북·전북·경북·해남·안성·진천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공로자(단체)로는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석탑산업훈장)과 군산제회미곡종합처리장 한건희 대표(산업포장) 등을 선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

F1대회용 타이어 개발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에서 사용되는 타이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F1에 쓰이는 타이어는 타이어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최첨단 기술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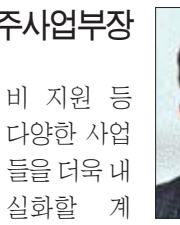
"지역민들의 美·건강 책임질 것"

이 승 호 아모레퍼시픽 광주사업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응,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 사업부장으로 취임한 이승호(45) 상무는 "질 좋은 제품과 진취적인 마케팅으로 지역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무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장학금 지급, 유망암 무료검진, 무료 건강강좌, 저소득층 수술



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대 경영대를 나온 이 상무는 89년 태평양에 입사해 총무팀장과 방관전주지점장, 방관광주지점장을 거쳤다. 부인 선거희(40)씨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

황화중 관세 행정관 '올해의 광주 세관인'

황화중(46) 광주세관 휴대품과 관세 행정관인 '올해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돼 31일 상을 받는다.

황 행정관은 무안공항 개항에 대비해 세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시설수급 등 소요계획을 수립, 시행해 무안공항이 국제적인 휴양·관광·물류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휴대품 통관절차를 민·관합동으로 홍보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여행자의 법규 준수도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itee@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초나는 최신품을 위한 최고의 TV를 선택하세요

062-522-2000

초혼 재혼 결혼상담
11월 28일 화요일 14:00 ~ 17:00 까지

한글 사용서신 - 한글 가두서신 -
까사르에 오시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까사르에 오시면 행복한 가정을 선택하십시오

Dynasty-Club

지사장 김원병씨 모심

062-451-3545, 3547
(이전 : 010-5150-5540)